

대통합신당 광주서 첫 정책토론회

저마다 광주 인연 강조...孫대북관 집중 공격

孫 “한나라 있을 때도 햇볕정책 지지했다”
“내가 평화대통령 적임자” 이슈 선점 공방

대통합민주신당이 7일 광주에서 당내 대선주자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통일·외교·안보분야' 첫번째 정책토론회에서 각 주자는 '평화대통령'의 최적임자임을 강조하며 평화이슈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선잡기 경쟁을 펼쳤다.

순화규 정동영 이해찬 유시민 한명숙 후보는 이날 광주, 전남·북 정책토론회에서 자신이 북핵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저마다 '광주정신'의 계승자를 자처하며 호남 구애에 총력을 썼다.

◇孫대북관·정체성 집중공격=예비경선 1위 손 후보를 나머지 후보가 집중 공격해 '1대 4'로 싸우는 양상이 재연됐다.

특히 손 후보가 한나라당이 있는 메인 자년 10월 북핵실험 직후 제재론을 주장하고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를 요구했다는 점과 최근의 '대선용 남북정상회담 노평규' 발언이 집중 거론됐다.

정 후보는 "지난 2월 2·13 합의가 이뤄졌는데 손 후보가 작년 10월 핵실험 당시 했던 발언은 4개월 앞도 못 내다본 단견이었음이 드러났다"며 "만약 당시 손 후보가

대통령이었다면 PSI에 참여했을 것이고 그 결과는 전면적 재앙이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손 후보의 대북관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어떻게 다른지 큰 차이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대선용 남북정상회담 노평규' 발언에 대해 "담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거나 모기 잡는 데 포를 쏘면 안된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한 후보는 "손 후보는 예전에 핵문제 해결이라는 전제 하에 정상회담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만나면 해결된다고 한다. 남북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시류에 따라 왔다갔다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손 후보는 발언취소 요구에 대해 '노평규'라고 반응하면서 "대통령이 더 이상 대선에 관여하지 말아달라는 절실한 심정을 강조해버림으로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저마다 '평화대통령' 적임자=손 후보는 "한나라당에서도 반대를 무릅쓰고 햇볕정책을 찬성했다. 친북좌파라는 말을 하

는 사람에게 한반도 미래를 맡길 수 없다"고 이명박 후보를 겨냥했다.

정 후보는 "2005년 9·19 합의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6자회담 재개에 이끌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제부터 한반도 경제공동체를 만들어야 하고 정상회담은 반드시 잘 살려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나라당의 엄청난 무차별적 공격을 제가 다 막아냈다"며 "대통령이 되면 5년 내에 남북연합단계를 들어가 정상회담은 물론 각료회의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대통합민주신당이 7일 광주 5·18기념문화관에서 '통일·외교·안보분야'를 주제로 개최한 첫 대선주자 정책토론회에서 각 주자들이 평화이슈 기선제압을 위해 공방을 벌이고 있다. /위정렬기자 jrwi@kwangju.co.kr

시설

광주 남구가 과연 투기과열지구인가

광주시 남구가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설교통부는 7일 충남 천안시와 아산시, 계룡시, 충북 청주시, 청원군, 대전시 동·중·서·대덕구 등 11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으나 광주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남구는 보류했다.

건설교통부의 조치는 납득할 수 없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대전 유성구, 충남 공주시, 연기군 등도 투기과열지구 해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광주 남구가 과연 투기과열지구인지 의문이다. 경제계 등 지역사회도 실망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요건은 엄격하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아야 하고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넘어야 한다. 또 분양계획이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주택의 전매행위 상행으로 투기과열 조짐을 보여야 한다.

광주 남구는 이러한 지정요건을 이미 상실했다. 광주는 주택매매가 상승률이 별로 높지 않고 미분양 물량이 1만 가구에 육박하는 등 공급과잉으로 주택건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광주경제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역주택건설업체들은 최근 신일과 세종의 부도에서 드러나듯 위기상황이다. 광주 남구가 계속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지역주택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게 됐다. 주택건설경기에 민감한 건설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지역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오죽하면 대한상회가 지방부동산 경기를 진단할 수 있는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을까. 정부는 규제 완화 등 지방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外高 설립 불허 광주 특수성 고려해야

교육부가 외국어고와 과학고를 비롯한 특목고 설립 사전협의 절차를 오는 10월 말까지 전면 유보키로 했다. 특목고 설립인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나아가 기존 특목고의 지정 해지 등을 포함한 수월성 교육체계 개편안을 마련키로 했다.

교육부의 조치로 광주시교육청이 201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온 외국어고 설립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개교가 지연될 수밖에 없게 됐고 무산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광주시교육청과 외국어고 유치에 나선 동구청이 반발하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서울, 경기지역 외국어고들이 상위권 대학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교과과정을 파행 운영하고 '진학반'을 편성하는 등 입시기관화한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외국어 전문 인재 양성이라

는 설립 목적을 위반했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외국어고 신규 설립을 봉쇄하면 지역의 인재 유출은 불가피하다. 현재 전국의 외국어고는 29개에 달하지만 광주시와 강원도에는 한 곳도 없다. 오는 2010년부터 외국어고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거주지로 제한되면 광주의 외국어고 지망생들의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외국어고는 지역의 우수 학생을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최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돼 외국어 인재 양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외국어고를 모두 없앤다면 모르지만 거주지까지 제한되는 마당에 광주와 강원도의 특수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도에 최소한 1개 정도는 허용해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5파전

조순형·신국환·이인제·김민석·장상씨 후보 등록

민주당은 7일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경선레이스에 들어갔다.

조순형, 신국환 후보가 전날 등록을 한데 이어 이인제, 김민석, 장상 후보도 이날 등록 절차를 마쳐 민주당 경선은 '5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호 추첨을 통해 기호 1번 장상, 2번 이인제, 3번 조순형, 4번 신국환, 5번 김민석 후보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오는 1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인터넷·TV토론회, 다음달 14일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한다. 또 20일부터 전국 순회 경선에 들어가 다음달 16일 대통령후보자 선출 선출대회를 개최한다.

순회경선은 20일 인천, 29일 전북, 30일 강원·대구·경북을 거쳐 다음달 3일 제주, 6일 부산·경남·울산, 7일 서울, 13일 경기·대전·충남·충북 14일 광주·전남 순으로 진행된다.

민주당 경선은 조순형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이인제 후보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역전을 자신하고 있다. 또 김민석 후보는 예상 밖의 돌풍을 장담하고 있으며, 신국

환, 장상 후보가 추격전을 벌이는 양상이다.

조 후보는 다음주 유동태 전 노동부 장관을 총괄 선대본부장으로 하는 선대본부를 출범시키는 등 '조순형 대세론' 굳히기에 나설 예정이다. 이 후보는 전국 버스투어를 통해 '바다 표식'을 장악해 나가겠다는 전략이다.

또 김민석 후보는 '대세론이 아닌 이변과 드라마'를, 신국환, 장상 후보는 각각 '영·호남 화합 대통령'과 '민주당 중심 후보통합'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선전에 임한다는 방침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김상진씨 구속 수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건설업자 김상진(42)씨가 다시 구속, 수감됐다. 부산지법은 7일 부산 수영구 민락동 유원지 부지 매입과정에서 토지매수용역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수심어를 빼돌린 혐의(사기) 등으로 검찰이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산지법 교영대 영장담당 판사는 "김씨가 도주는 물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할 이유 타당하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 판사는 또 "검찰이 영장에 기재한 김씨에

대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고, 그 죄질 또한 무거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말했다. 이로써 김씨는 지난 7월16일 기술보증기금 대출 및 부산 연산동 재개발과정에서 44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같은달 27일 구속적부심에서 풀려난 이후 40여일만에 다시 갖는 신세가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7월 4일에는 민락동 놀이공원 미월드 부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부산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680억원 중 토지매입용역비 27억5천만원을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연산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 지난 6월 30일 연제구청장에게 용직료를 높여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1억원이 든 돈가방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씨는 미월드 부지매입 가격 조정 및 개발방향 자문 등의 용역계약을 M사와 맺은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인출증빙 서류로 부산은행에 제출해 돈을 지급받은 뒤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로부터 돈가방을 받았다고 둘러댄 위유천 연제구청장을 소환, 받은 돈을 즉시 돌려주지 않고 이를 후 반환한 이유와 돈을 받을 시기를 전후해 김씨의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연합뉴스

금호아시아나그룹
500년 변역 기원 식수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7일 김서구 오석동 소재 아시아나항공 본사에서 열린 '아시아나프라자'에 참석해 그룹의 500년 연속 변역을 기원하는 펜나루 식수행사를 가졌다.

박 회장은 이날 식수 행사에서 "오늘 심은 펜나루는 500년 이상을 사는 장수목으로 금호아시아나 그룹 전 계열사가 이룬 펜나루의 생명력과 기를 이어받아 500년 이상 번영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박삼구 회장을 비롯한 박찬구 회화부문 회장, 신훈 건설 부문 부회장, 오남수 그룹전략경영 본부 사장,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등이 참석해 그룹의 장수를 기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제출

정부가 7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정식 제출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미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는 생산적인 토론과 비판, 그리고 수용이 국회에서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가능한 빨리 우리 기업들과 국민이 한미FTA로 인한 선발의 이익, 선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

빛日만평 - 김종두

국회가 밥 먹여 주는거 아니랍니다

“정권교체 도와달라” “알아서 잘 하시리라...”

李·朴 경선뒤 첫 회동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와 박근혜 전 대표는 7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선 후 18일 만에 첫 회동을 갖고 대선승리를 위한 당내 화합 문제와 정권교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후보와 박 전 대표의 만남은 시종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됐으나 어색함도 없진 않았다. 경선 직후부터 뜬물 들었던 두 사람은 이날 '정권교체를 위한 화합'에 뜻을 같이 했지만 화합의 구체적 방법론에 대해선 철저한 언급을 피했다. 이 후보와 박 전 대표는 끝까지 웃음을 잃지 않았지만 때때로 빠진 말을 주고 받으면서 서로의 시선을 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연합뉴스

청와대 이명박후보 고소

명예훼손 혐의...이재오·안상수·박계동의원도

청와대는 7일 한나라당이 국정원·국세청의 '이명박 후보 죽이기' 공작정치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한데 대해 이 후보와 이재오 최고위원, 안상수 원내대표, 박계동 공작정치분쇄 범국민투쟁위원장을 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4시40분께 문재인 비서실장 명의의 고소장을 이익현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대리인 자격으로 검찰에 접수했다. 검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10일이 사건을 배당해 수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사실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피고소인 등이 혐의를 벗을 수도 있다는 차원에서 피고소인 출석 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원칙론'이기는 하지만 이 후보의 소환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청와대가 고소장 제출을 강행하자 '설마설마했는데 결국 이명박 후보를 고소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노무현 대통령은 고소장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문을 제출했어야 한다"면서 "노 대통령의 이 후보 고소는 공작정치의 실체를 가리려는 신공작정치"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

문근영 평양 가나
정상회담 동행 제안

‘국민 여동생’ 문근영이 다음달 2~4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동행을 제안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남북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이 발표된 가운데 문근영은 다음주 초에 공개될 특별 수행원 중 한 명으로 평양행에 제안받았다.

그러나 문근영의 소속사 측은 "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 빠질 수 없어 거절했다"고 밝혀 그의 평양행은 아직 유동적이다.

문근영은 지난 2004년 빈곤층 주민들의 자활지원 봉사단체인 원주반상공동체의 연탄은행 홍보대사로 북한을 방문해 물품을 지원한 바 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光 叻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許宰浩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禎榮 논설실장 金東永 편집국장 申港樂

1952년 4월 20일 創設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00-500·222-811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선	사회 2부	2200-619	총무부	2200-511	문화사업국	2200-541	
(대표 FAX)	222-4918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집부	2200-629	문화생활부	2200-626	광고국	2200-521	판매부	2200-551
정치부	2200-616	여론제작부	2200-628	(F A X)	227-9500	(F A X)	227-9500
경제부	2200-617	체육팀	2200-627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1부	2200-618	사진부	2200-690	사업2부	2200-552	(F A X)	02-773-9335
(F A X)	222-4267	조사부	2200-570	※구독료 월정 8,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